

오늘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농업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농업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농식품부, 시·군·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농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통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통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

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농업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다.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농업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

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결한 시·군·자치구에 주소가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결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들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1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도내 사회적경제 이끌 성장기업 3곳 선발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이 2022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유)더원푸드 등 3개사를 선정하고 17일 성장기업 지정서를 전달했다.

선정된 성장기업에게는 올해 10월말까지 제품개발, 공정개선,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차별 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금을 2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경영현황의 객관적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전북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굳건하게 자리잡 수 있도록 강한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 ESG경영 기업승계 조세지원제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제34회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 주)을 맞아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사인 '중소기업 ESG경영 설명회'와 '기업승계 조세지원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17일 표준협회 전북본부 교육장에서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체직목 전북 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협회장 소속 기업인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다.

중소기업 ESG경영 설명회에서는 ESG 전문 컨설턴트인 에코로드 지속가능연구소 양희정 경영지도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ESG 교육이라는 주제로 ▲ESG의 개념과 등장배경 ▲국내 ESG 동향 ▲ESG 공시 및 평가기준 ▲ESG 경영 사례 ▲중소기업의 ESG 대응 등을 설명했다.

'기업승계 조세지원제도와 적용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기업승계 조세지원제 설명회에서는 관세서무팀인 고경희 서무사가 ▲기업승계조세제도 ▲기업승계·창업자들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 ▲기업승계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면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승계시제를 포함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지속 가능한 축산식품산업 혁신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축산과학원·축산식품학회, 내일 학술대회 공동 개최

미래 축산식품산업을 이끌 국내외 혁신기술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식품을 위한 혁신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식품연구원(전주 혁신도시)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54회를 맞는 국제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 및 식품 분야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본 강연과 10개 분과(세션)로 나뉘어 미래 지향적 축산식품 기술, 최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축산물 부가가치 증진 기술, 축산물 안전관리 등 축산식품 분야 혁신기술

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날 본 강연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가축들이 방출한 메탄가스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선진 기술이 발표되며, 이튿날에는 쇠고기 과생산 보충 관련 연구가 소개된다. 최근 소비자 요구가 늘고 있는 클린라벨(Clean Label) 제품의 제조 기술을 소개하고, 클린라벨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해 식육 생산단계에서 바이오가스를 줄이는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우유에서 기능성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술도 선보인다.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해썬(HACCP) 관리 방법과 도제 표준 가공을 통해 가금육 미생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 고흥사랑기부제 대고객 홍보 캠페인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7일 지역농축산물 중심의 고흥사랑기부제 달래품 운영 홍보를 위한 대고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정재호 전북지역본부장과 장경민 전북영업본부장은 농협은행 전북영업부(부장 김경호)에서 고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역농축산물 중심의 달래품 운영에 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안 홍삼 가공품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고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장경민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곧 우리 지역과 농가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활동을 통해 지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달래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내년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래품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이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는데 최선을”

산림청 익산항공관리소 신임 신원주 소장 취임



공안전문과 정착에 행정지도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신원주 소장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주 소장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전문건설업체 관계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전건협 전북도회, 시티장례문화원·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16일 시티장례문화원(대표 이학형), 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 이광용)과 함께 '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2,200여 전문건설업체의 임·직원과 관계자는 해당 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티장례문화원 이학형 대표는 "고인이 되신 분들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지리가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고 가시는 길에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도내 전문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의 임근홍 회장은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회원사의 편의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이 시티장례문화원과 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신속건물의 고급화를 통해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

신협, 은행권 신규 가입 이벤트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모바일 플랫폼 '은행+'의 누적 가입자 수가 1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7월 15일까지 은행권 신규 가입자와 상생 기업자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내 ▲은행 앱 신규 가입자 1,000명(추첨과 ▲은행 앱 회원 중 신협 앱(ON) 서비스 신규 가입자 1,000명(추첨)에게 각각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협 앱(ON) 서비스는 지난 2020년 9월 신협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개시한 장정택 바이오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다. 앱(ON) 서비스를 통해 창구와 자동화기에서 신분증이나 카드 없이도 쉽고 안전하게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은행권 전용 적립상품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중, 소액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유니온 정기적금 ▲유니온 자유적립적금, 최대 1.2%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e-과관적금 등을 신규 개설 후 월 20만 원 이상 납입한 고객 총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제공한다. 동일 기간 어부바신협(ON)상해공에 가입자 전원에게도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선물한다.

이와 함께 신협 해외경용(VISA) 체크카드 발급 후 1회 이상 결제한 선착순 2,000명의 고객에게도 GS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 및 신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